

T V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멈출 수 없어>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미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다큐 <아시아 문화기행>	4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25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감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여름방학 특선 안코르 <꽃보다 남자>	11 00 수목미니시리즈 <트러플>(재)	00 월드베스트 세계의 도시문화탐방
00 KBS 뉴스 12	10 VJ 특공대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W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결격선 (해신)(재)	10 안코르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길>(재)	1 25 특선다큐멘터리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0 KBS 스포츠 KBS배 레슬링대회	10 KBS 네트워크-청주	2 15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인류의 도전 세계 최고의 현정(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니파니	00 2TV 스페셜 코미디쇼 희희낙락(재)	3 05 TV특종 스페셜	00 TV특강 행복플러스(재)
00 KBS 뉴스 5 15 동물야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리이트 <위기탈출 넘버원>(재)	4 00 뽀뽀뽀 아이즈 30 우리는 명탐정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피스 스페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 토크 우리 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사투리스 열목달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러브인 아시아	10 무한지대	6 30 MBC 뉴스 50 남도부보상	25 생방송! KBC 투데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7 20 따뜻한 TV 45 일일시트콤 <태희 해교 지연이>	05 시사타지 따따따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00 KBS 뉴스 9	00 1대 100 55 월화 미니시리즈 <결혼 못하는 남자>	8 15 일일연속극 (밥 쥐)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200회 특집 생활의 달인
00 시사기획 씬 50 너티나루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대하사극 <자명고>
00 KBS 뉴스타임 30 콘서트 필	05 상상+	10 15 PD 수첩	05 긴급출동! SOS 24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영화가 좋다(재)	15 생방송 시사 360 45 클래식 오디세이	11 05 MBC 뉴스 24 20 스포츠 하이리이트 25 MBC 프라임 <빛과 어둠의 미술사, 렘브란트>	15 나이트라인 45 세상발전 유레카(재)

“대통령 시켜준다 해도 안할 것”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대통령역 배우 장동건

장진 감독의 새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의 촬영 현장이 20일 공개됐다. 대통령 차치욱(장동건)이 참모들과 함께 야당 총재로 당선된 한경자(고두심)의 연설을 지켜보는 장면. 지옥은 화면에서 이연(한채영)을 발견하고, 이연이 야당 대변인으로 나선다는 참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떼지 못한다. 다시 진행되는 촬영에서 참모역을 맡은 장영남이 대사가 꼬이는 NG를 내버려 웃음바다를 만든다.

“태풍” 이후 4년만에 짙고 짙었던 연소 대통령 차치욱으로 분한 장동건은 “사석에서 장진 감독을 만나서 영화 얘기를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시나리오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여 달라고 했다”고 했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코미디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차기작으로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게 됐고요. 저에게 필요하고 하고 싶은 것이 일치했죠.” 장동건은 “사투리부터 일본어, 중국어로 연기하다 오랜만에 표준어를 쓰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직되고 전형성에 갇힌 캐릭터에서 벗어나 감독과 다양한 대사로 표현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재밌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 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 오히려 대통령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도 짙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그러나 “영화를 찍으면서 대통령은 개인을 다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켜줘도 하고 싶지 않다”며 “지구상에서 배우가 가장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오랫동안 이 직업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이순재가 퇴임을 6개월 앞두고 복권에 당첨되는 대통령 김정호역을 맡았고, 고두심이 맡은 한경자는 법무부장관과 야당대표를 거쳐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인물이다. 한채영이 맡은 이연은 차치욱이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한 김정호의 딸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에 정취 풍자를 담은 코미디 영화로, 올 하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18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비특대회

운명의 라이벌전

3회전 2국 1보 (1~16)

白 김영수 5단 黑 허우석 5단
(빛고을 교사회) (광주시청)

대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강팀들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역시 예상대로 포스코와 광주시청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외로 (주)송림과 주매관리사회가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고 그 뒤를 빛고을 교사회가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판은 전통의 강호이자 라이벌인 광주시청의 영리한 주장 허우석 5단과 빛고을교회의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판은 전통의 강호이자 라이벌인 광주시청의 영리한 주장 허우석 5단과 빛고을교회의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두 대국자는 그동안 본 대회에서만도 술하게 결전을 벌여온 사이로 두 대국자의 승부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 판의 결과에 따라 두팀의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대국자는 비슷한 스타일로 치열한 전투형, 거기다가 서로를 잘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혹 15까지는 일단 순조로운 출발인데 백 16의 느슨한 협공이 눈에 띈다. 다음 한수가 중요하다. <요규철 9단·본보 비특대회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음 5월 29일 丁卯)

子	36년생 배우자편에 불평사가 발생할 수 있다. 48년생 부부간 언쟁이 발생하니 참아보라. 60년생 희망이 오는 형상이니 준비하고 고요하라. 72년생 생활에 만족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84년생 수족을 살펴보고 관리에 힘쓰라. 행운의 숫자 : 05, 39
丑	37년생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참어는 조심하라. 49년생 욕심은 금물 차분히 참라. 61년생 우연이; 길사와 연결되니 오래 못 간다. 73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하라. 85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01, 26
寅	38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50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62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7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으로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 18, 35
卯	39년생 풍류에 휩쓸려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51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63년생 협조자가 안 보이고 혼자서 외로워나 주변인들에게 배풀어라. 75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한다. 행운의 숫자 : 04, 32
辰	40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재수가 있을 수다. 52년생 남여간에게 이성애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라. 64년생 남의 말을 꼼꼼히 살펴 보라. 76년생 도깨비 발등을 찍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06, 44
巳	41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니 손실이 걱정된다. 53년생 모든 일이 즐겁지만 마무리가 아쉽구나. 65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예정 경사가 있을 수다. 77년생 바람이 일어 날 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2, 28
午	42년생 병약한 길목이나 폐인이 중해될까 두렵다. 54년생 복이 생기니 신사는 피하고 선길후흉으로 간다. 66년생 부부간에 갈등이 변종으로 나타난다. 78년생 사기에 영입 수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행운의 숫자 : 23, 43
未	43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니 아직은 시기상조로다. 55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하라. 67년생 결정하기 어려우니 과감하게 결정하라. 79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내용에 활동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10, 43
申	44년생 자신의 불평사가 주변까지 미치지 혼자서 조심하라. 56년생 좋은 때나 좋은 관계를 만드니 배풀면서 보내라. 68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오니 옛 정을 유지하라. 80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행운의 숫자 : 22, 42
酉	45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하라. 57년생 협조자가 생기니 신사는 피하고 선길후흉으로 간다. 69년생 형제 수하인 등으로 불평사가 발생한다. 81년생 흥이 북으로 변한다. 행운의 숫자 : 13, 16
戌	46년생 희망한 설계로 모든 일이 순행한다. 58년생 길 다르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할 도모한다. 70년생 고목회초의 기쁨은 신라만이 아니다. 82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심도 행여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41
亥	47년생 괴물처럼 사람이 협조자로 변하니 흥분해라. 59년생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준비를 살라. 71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83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기니 고요하게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24, 3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9:45 치로와 친구들	15:35 달려라! 도라래(재)	19:50 공룡캠프의 비밀
06:30 세계테마기행	10:00 60분-부모	15:45 깨미랑 부키(재)	20:15 우당탕탕 마술
07:10 리틀 프린세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5:55 당동영 유치원(재)	20:20 퀴즈장사 만만세
07:25 신기한 스쿨버스	11:30 디류 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16:15 리틀 프린세스(재)	20:50 세계 테마 기행
07:50 척척푹푹 처갓집	12:20 허니본인 지구	16:30 페넬로페, 뭐 할까?(재)	<남태평양의 낙원 필리우>
08:00 당동영 유치원	13:10 공룡의 달인	16:35 척척푹푹 처갓집(재)	21:30 (생방송) EBS 뉴스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13:40 문학사랑	16:45 빨강머리 앤	21:45 지식채널 e
08:30 달려라 카카	13:45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7:10 워드 월드	21:50 디류 프라임
08:40 달려라! 도라래	14:05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7:35 신나는 과학 에니메이션	<기억력의 비밀>
08:50 깨미랑 부키(재)	14:25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Why?>	22:40 공부의 달인
09:00 뽀뽀뽀 뽀로로	14:45 배꼽 시즌2	17:50 (생방송) 특! 특! 보너스	23:10 디류 10+
09:15 방귀대장 뽀뽀	14:55 또또비를 찾아라(재)	18:50 배꼽 시즌2	<영웅의 땅, 티베트>
09:30 물리와 나	15:05 방귀대장 뽀뽀(재)	19:00 스톱 호크	00:00 지식채널 e
09:35 또또비를 찾아라	15:20 알록달록 공룡이	19:25 이상한 나라의 풀	00:05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7:00 EBS 포스(수학 1)	<한국지리>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화학 1>
<국어>	16:1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08:40 <사회>	<한국지리>
09:30 EBS 학습자료실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클릭! 사이언스	18:00 EBS 포스(재) <고전문학>
09:40 EBS 수능 플러스	19:00 <수학 1>
<수리영역>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10:30 세계테마기행	<화학 1>
12:00 EBS 내신6강 <국어>(상)	21: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
12:50 <사회>	<중국어>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21:50 EBS 수능특강(재)
<국어>(상)	<수리영역>
14:30 <사회>	23:00 EBS 수능특강-고3(재)
15:20 EBS 탐사선(재)	<언어영역>
08:00 여름방학특강 중학 3학년	14:00 중학 사고와 논술
<국어>	14:40 방과후 영어
08:40 <수학>	16:3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9:20 여름방학특강 중학 2학년	17: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영어>	17:2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0:00 방귀대장 뽀뽀	17: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0:15 당동영 유치원	19:00 여름방학특강 중학 3학년
10:35 알록달록 공룡이	<국어>(재)
10:50 또또비를 찾아라	19:40 <수학>(재)
11:00 요리조리광명	20:20 여름방학특강 중학 2학년
12:00 여름방학특강 중학 1학년	<영어>(재)
<국어>	21:00 여름방학특강 중학 1학년
12:40 <수학>	<국어>(재)
13:20 TV 중학	21:40 <수학>(재)
<문학과 함께 세상 바라보기>	22:20 Magic 중학 영문법

굿모닝 잉글리쉬 <1351>	오하오우 니혼고 <1351>	니하오 쑹구위 <428>	한자 이야기 <1068>
<p>What's going on? 무슨 일 있어?</p> <p>A: What's going on? B: I'm trying to find a new job. A: What happened with your other job? B: Nothing. I just need some more money. A: I hope you find something. Hang in there.</p> <p>A: 무슨 일 있어? B: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거든. A: 자네가 하고 있는 다른 일에 무슨 문제 생겼나? B: 아니, 그냥 돈이 좀 더 필요하거든. A: 쓸쓸한 일을 찾길 바래, 걱정 뚱! 파이팅.</p> <p>* something : 괜찮은 일, 쓸쓸한 일</p>	<p>試験(しけん)、難(むずか)しくなかった 시험, 어렵지 않았어?</p> <p>A: 試験(しけん)、難(むずか)しくなかった。 B: あまり難(むずか)しくなかったけど、言葉(ことば)に自信(じしん)がなくて、ちょっと心配(しんぱい)だよ。 A: 試験(しけん)は残(のこ)りいくつなの。 B: ひとつだけ。</p> <p>A: 시험, 어렵지 않았어? B: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말에 자신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야. A: 시험은 몇 개 남았어? B: 하나뿐이야.</p> <p>* 難(むずか)しい: 어렵다 * 言葉(ことば): 말 * 心配(しんぱい): 걱정</p>	<p>大嘴(대)는 입이 싸다</p> <p>A: 你这个人怎么是个大嘴巴? 你总是说别人的坏话,你真是个大嘴巴。 B: 这什么意思? 没什么意思。 A: 现在学校里所有的人都知道了,你知道吗? B: 不是,我一直守口如瓶。 A: 你为什么要说别人的坏话? B: 没什么意思。 B: 不是,我一直守口如瓶。</p> <p>A: 넌 사람이 왜 이렇게 입이 싸? B: 그게 무슨 소리야? A: 학교에 나랑 겨냥 사관다고 소문 나 있어. B: 난 아니잖, 내가 입이 열려나 했어.</p>	<p>雍齒封侯(옹치봉후) 성웅, 이치, 봉할 봉, 제후 후</p> <p>옹치봉후(雍齒封侯)는 한고조가 옹치를 제후로 봉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옹치(雍齒)는 고조가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늘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를 비유한다.</p> <p>어느 날 한고조가 낙양의 남궁(南宮)에서 밖을 내다보니 여가지에서 장수들이 무리지어 수군거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들이냐?”고 고조가 묻자, 장량(張良)이 대답했다. “모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왕이 놀라 이유를 묻자, “폐하께서는 소하나 조삼 등 측근들만을 제후로 봉하시고 권소에게 폐하와 가깝지 않았던 자들을 죄를 물어 처벌하셨습디다. 지금 저들은 각각의 공적을 논의하고 있는데,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려면 천하를 다 주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들 생각이 자신은 상을 받기는 커녕 죄를 물어 처벌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우면서 차라리 모반을 꾀할까하고 수군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모두들 폐하가 가장 싫어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옹치요.” “그럼 서둘러 옹치를 제후로 봉하십시오. 여러 신하들이 ‘저 옹치까지 제후에 봉했으니’ 하고 안심할 것입니다.” 고조가 장량의 말대로 하자, 과연 여러 신하들은 잠잠해졌다. (史記, 留侯世家) 즉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직을 맡겨 여러 장수의 불만을 무마시킨 것이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